The following are reports on the recent RC Community Building Workshop in Korea. They have been written in both Korean and English and in one case also Japanese. Each report appears first in the language that it was originally written in.

Many thanks to the translators: Yuko Hibino, Uihyeon Jo, Jane Kim, Sangwoo Kwon, JeeYeun Lee, and Helen Shin.

최근 한국에서 열린 RC 공동체형성 워크샵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한 번만 일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보고서의 처음은 원래 작성되었던 언어로 표기됩니다.

번역가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히비노 유코, 조의현, 제인 김, 권상우, 이지연, 그리고 헬렌 신입니다.

The First Weekend Workshop in Korea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주말 RC 워크샵

For a few years now, people have been building the RC Community in Korea. Sangwoo Kwon, the key leader there, has been teaching RC classes and leading a group of enthusiastic Co-Counselors. Also, other leaders have come to teach and offer resource to the Community.

At this point, most of the Korean RCers live outside of Korea, though many still have ties to family and friends there. All of them love being Korean. And they love other Koreans. And, as I found out, they all love being in Korea! Together!

To help move Korean liberation forward and build the Korean RC Community, we planned a workshop for May 2018 in Seoul, Korea, that would bring experienced Co-Counselors from outside Korea together with the Korean Community. My hope was to boost both groups as they reached for each other using RC. It worked!

The Korean Peninsula has suffered from incessant outside interference—colonization and imperialism—and the oppression and internalized oppression have been harsh. The divi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as forced on the Korean people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It was never something the Koreans wanted. Many families were split and pitted against each other in a process that was and still is heartbreaking for all. Koreans continue to hope for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For them, there are not two countries but one.

Recently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newed their efforts to move in each other's direction. It's been refreshing to see the South Korean president reach unapologetically for his counterpart in the North, who has long been iso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wo have met and discussed a number of issues. They have vowed to end the Korean War, left unresolved for decades, and are working toward replacing the DMZ (Demilitarized Zone) with a peace zone. They also supported a joint winter Olympics team and reinitiated family reunions.

This spring was a hopeful time to be in Korea. Getting to listen to people about the current events was important. But most significant to me was that a group of Koreans, along with Japanese (Japan occupied Korea for over fifty years) and U.S. allies, did work that would move Korean liberation forward in a solid, permanent way. We worked to be with each other, listen, and heal from the distresses that can get in the way of our being with one another. We contradicted the hurts from war, colonization, imperialism, racism, and early childhood experiences. We laughed, played, discharged, got closer, and learned so much from each other.

It was moving to be part of this as a Filipina ally. I got to be with people who in spite of their harsh mistreatment were kind, warm, and loving as they reached for each other.

All of us put our heart and "Seoul" into everything we did. It took all of our minds and moved us forward. It was so very hopeful.

Teresa Enrico
International Liberation Reference Person for
Pacific Islander and Pilipino/a-Heritage People
Seattle, Washington, USA

continued . . . /계속 . . .

. . . 계속/. . . *continued*

이제 몇년 째 한국에서 RC* 커뮤니티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주요 지도자 역할을 맡은 권상우 씨가 RC 수업을 가르치며 열정적인 코카운슬링 그룹을 지도하고 있다. 이 분 외에도 다른 리더들도 RC를 가르치고 커뮤니티에게 자원을 보탰다.

지금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한인 RC멤버들은 한국 밖에서 살고 있다. 허나 그들은 아직 한국에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모두들은 한국인 인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알아내기를, 모두가 한국에 있는 걸 정말로 좋아한다! 특히 같이 있는 것을!

한국인들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한국 RC커뮤니티를 키우기 위해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코카운슬러들과 한인 커뮤니티를 합쳐 2018년도 5월에 서울에서 워크샵을 계획했다. 나의 희망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과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RC를 통해 서로를 향해 움직임을 도우는 것이였다. 성공적이었다!

한반도는 바깥 방해를 끊임없이 받아왔다—식민지와 제국주의—그리고 그 업악과 내면화된 억압이 억세다고 말할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진 것이고 한국인들은 선택권이 없었었다. 한국인들이 절대 원했던 일이 아니다. 많은 가족들은 한국이 나누어지면서 헤어지게 됐고, 서로 싸우게 됐다. 아직도 모두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재통일을 희망한다. 그들에게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이다.

최근에 와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움직임을 되살렸다. 남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북한 대응부를 망설임 없이 붙잡는게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 둘은 만나 아주 많은 이슈들을 이야기 했다. 6.25 전쟁을 끝내기를 맹세했다, 몇 십년을 마무리 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DMZ를 평화의 지역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그 또한 겨울올림픽에도 합동 팀을 지원했고, 가족상봉도 재시작했다.

봄은 한국에 있기에 희망이 가득찬 때였다. 시사의 대해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했다. 그렇지만 내게 제일 뜻 깊었던 일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과 그리고 미국 동지들과 합동으로 한국인들의 해방을 강하고 만고불변하게 앞으로 밀고 나갔다. 서로 말을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데에 방해가 되는 상처들로 부터 치유를 했다. 전쟁, 식민지, 제국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어렸을 적 어려웠던 경험들을 서로 반박해 주었다. 우리는 웃고, 놀고, 디스차지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 로부터 많은것을 깨달았다.

필리피나 동지로서 함께 할수 있었던 게 감동이였다. 비롯 거친 대접을 받은 민족인들이오나 동정심과 따뜻함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다.

우리 한 모든 일에는 마음과 "서울"**이 가득찼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필요했고 우리는 진도를 냈다. 아주 희망적이었다.

테레사 엔리코
태평양 제도민과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국제 대표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서울"이란 단어가 영어로 영혼 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들린다.

The first weekend RC Community Building Workshop in Corea* was a huge success. I was part of a small group of experienced Co-Counselors from North America and Japan who attended to support the Community there.

Before the workshop, several of us did phone sessions with Sangwoo Kwon, the organizer of the workshop and the leader of the RC Community in Corea, and shared our experiences with workshop organizing. In addition some of us did conference calls with Mike Markovits, the president of the Re-evaluation Foundation, to discharge and think about raising money among our non-RC friends and family for the RC Corean liberation fund.

* "RC"는 영어로 "Re-evaluation Counseling"의 약어다. Re-evaluation Counseling은 재평가 상담이란 의미다.

*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name of the country was usually spelled "Corea" in languages using the Roman alphabe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t is believed that Japan pushed for it to be spelled "Korea," so it would appear after Japan in an alphabetical listing. It is still spelled with a "C" in some languages, like French and Spanish, and progressive activists and scholars have been advocating for that spelling in English as well.

Teresa Enrico, the International Liberation Reference Person for Pacific Islander and Pilipino/a-Heritage People, led the weekend workshop. Before it she led a twenty-four-hour pre-workshop for those of us from North America and Japan. And following it she led an introduction to RC for people's family and friends; then a playday with four parents, four young people, and several allies.

At the weekend workshop she invited people to ask one question they had about RC. One woman who hadn't been attending Sangwoo's class asked why it was important to be part of a Community and go to class if one was doing weekly sessions. In many ways the workshop itself was her answer. Teresa showed what's possible with her talks and demonstrations, including ones that got everyone laughing and understanding how to think about and back [support] leadership. At the end of the workshop the same woman had a huge session in her support group. She also came to the RC playday with her son. And I hear that since then she has been coming to class!

I think many of the participants came to understand that an RC class is for them rather than being an additional obligation. For Coreans obligation can get confusing. Messages of having to work hard all the time for survival have been passed down as a result of colonization and war. Having the tightness contradicted by connection and lightness was lovely.

As a North American person of Corean heritage, I found it moving to be with a community of people doing RC in the place where my parents were born and raised. The connections were genuine and warm and contradicted the harshness that had come at me as a young person (another result of colonization and war!). I had big sessions about how much I loved being in Corea and what it had been like not having many Corean people in my life as a young person.

The interpreting team interpreted into Corean, Japanese, and English, which took lots of coordination and thinking and was spectacular to witness. It was a visible and auditory reminder of what's possible when people care about each other and get a chance to think together.

Being an ally to people who share my cultural heritage was a huge treat and like all ally work a great opportunity to get attention out while moving something useful and meaningful forward.

Alma Soongi Beck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주말 RC 공동체 형성 워크샵은 대성공이었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온 경력있는 작은 코카운슬링 그룹 중 한명이었다.

워크샵이 시작되기전에, 몇명은 워크샵 주최자이자 RC커뮤니티 리더인 권상우와 전화 세션들로 통해 워크샵 주최자로서 경험을 나누었다. 그 외로 몇명은 재평가 재단의 회장을 하고 계신 마이크 마코비츠와 디스차지를 하며 RC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RC 한인 해방 펀드를 위해 모금하는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태평양 제도민과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국제 대표인 테레사 엔리코가 주말 워크샵을 리드 했다. 그 바로 전에는 24시간동안 북미와 일본에서 온 우리를 위해 작은 워크샵을 리드했다. 그리고 그 바로 후에는 워크샵 참여자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RC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선 아이를갖은 부모 4명과, 아이 4명과, 여러 동지를 데리고 프레이 데이즈를 가졌다.

주말 워크샵에선 사람들에게 RC에 관한 질문 하나씩을 물으라 했다. 사우의 수업을 참석하지 않고 있었던 여자분 한명이 매주 세션을 하는데 왜 커뮤니티에 속하는게 중요하냐고 물었다. 많은 면에선 그 워크숍 자체가 그 답이었다. 테레사가 말과 데모로 가능성에 대해 보여줬다. 그중에 한 번은 리더를 지지하는것에 대해서였다, 모두가 웃으면서 이해심이 깊어졌다. 워크샵이 끝나갈 때 그 같은 여자분이 자기 서포트 그룹에서 아주 큰 세션을 가졌다. 그리고 아들과 RC 프레이 데이즈에도 참석했다. 그 이후로는 수업을 잘 참석하고 있다고 들었다!

참석한 사람들이 RC 수업은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 이란 걸 깨달은 것 같다. 한국인들은 의무가 헷갈릴 때가 있다. 식민지와 전쟁 때문에 생존적인 정신을 물려받은 결과, 쉼 없이 계속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 완고한 생각을 연결과 가벼움으로 반박 되는 것이 아름다웠다.

계속 . . ./*continued* . . .

* 20세기 초기까지는 한국이란 단어가 로마자로 쓸때에 "Corea"라고 써졌었다. 허나 일제시대 때 일본 "Japan" 뒤로 순서가 바뀌도록 "Korea"로 바꾸었다. 현재에는 불어나 스페인어로는 "C"로 쓰여진다. 그리고 진도적인 운동자나 학가들은 본래대로 쓰여지는 것을 옹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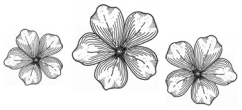
. . . 계속/. . . *continued*

북미에 사는 한국인 뿌리를 갖은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RC를 하는 사람들과 있는게 감동적이었다. 사람들과 접함은 진실되었고 따뜻했고 내가 어렸을 적에 받아온 엄격함을 (또한 식민지와 전쟁의 후유증!) 반박했다. 어렸을 적 주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에 관한 것과 한국에 있는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큰 세션들을 가졌다.

통역팀은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로 통역을 했다. 그러기엔 많은 합동과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주 굉장해 보였다. 서로를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할땐 무엇이 가능한지를 눈와 귀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나와 같은 문화적인 뿌리를 갖은 사람들에게 동지가 되어 줄수 있었던게 아주 큰 즐거움이었고 모든 동지 활동과 같이 쓸모있고 뜻깊은 것들을 진도 내는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

알마 숭기 백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The workshop was a stepping-stone [a way to move forward] to Korean liberation. All the seeds that had been scattered by many people, and the fertilizer from here and abroad, helped the RC tree in Korea bear the fruit of its first weekend workshop. As the wind blows and the pollen flies across the nation, we will witness more RC fruit on the Peninsula. We are proud to be a part of this big project of human liberation. Let's do it together forever!

Sangwoo Kwon
Seoul, South Korea

공동체 만들기 워크샵은 한국인 해방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많은 이들을 통해 뿌려진 씨들과 국내와 해외에서의 거름들이 한국에서의 RC 나무가 최초의 주말 워크샵이란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왔다. 바람이 계속 불면 꽃가루가 국내 전체로 퍼지며 우리는 반도에 더 많은 RC 열매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 해방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감개무량하다. 우리 이 일을 영원히 함께 하자!

권상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YUKO HIBINO

멀리서부터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코카운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한국의 RC 기록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워크샵 주최를 도우면서 제가 다시 자극을 받았습니다. 고충에 사로잡혀 포기 하지 않게 도와준 RC어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식으로 통한 한국의 고전적 손님접대의 방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들이 풍부하고 다양해야지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제 감정을 내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의 감동적인 리더십과 지연님의 지지와 도움에서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RC어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자연스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옥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the Co-Counselors who came from faraway places to join us, and I'm honored to have been part of the historic record of RC in Korea.

In helping to organize the workshop I got restimulated. I'm so thankful to the RCers who helped me to not get trapped in the distresses and give up. I was uncomfortable because of Korean cultural patterns about treating guests well by feeding them. But I was able to let go of my feeling that we can only show our love by offering an abundance and variety of delicious food.

There were many things to learn from Teresa's touching leadership and JeeYeun's support and assistance. Watching each RCer, I could see how easy and natural it is when we do this work together.

Lee Og-soon
Seoul, South Korea

미국에 있는 한국인 RC어들이 한국에 RC가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RC를 만나게 된 것이 그저 우연이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댓가이며 참 귀한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모든 RC어들에게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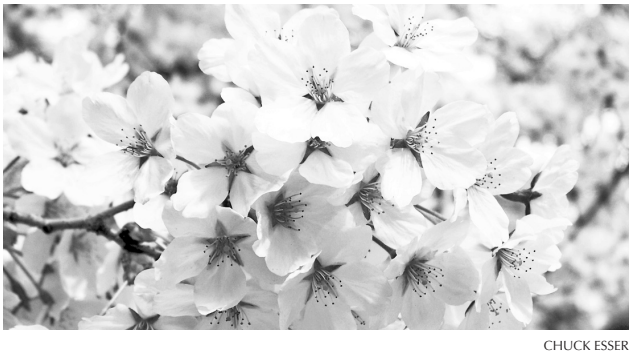
난 주최 담당 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워크샵 주최 일은 매 순간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보다는 적절히 일을 분배하여 일이 매끄럽게 진행 되도록 하는 일 이라는 것을 배웠다.

윤희옥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Watching U.S. Coreans support RC in Corea, I thought, "Oh, that I encountered RC is not a coincidence or an easy thing. It's the result of a lot of people making an effort. It's a precious gift." I am thankful to and touched by the RCers who came all this way to be with us.

I was part of the organizing team and thought that when you have a workshop job you must do it all yourself at every moment. I learned that it is about making sure that the work is shared appropriately and goes smoothly.

Yun Heeog
Gwangmyeong,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CHUCK ESSER

워크샵을 가기 전 직장을 옮긴 상태였어요. 새로운 일도 너무 많아 무언가 계획할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할수도 없던 상태였죠. 처음에는 관둬야 할까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우울증인가 약을 먹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워크샵을 가는 건 너무 부담되었고 참석하라고 푸시하는 리더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게 보였어요.

위크샵 문을 열자마다 제가 이방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환영 받는 느낌이었어요. 맘이 편해졌죠.

워크샵은 처음이라 이렇게 쉼없이 세션하는 줄 몰랐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제 힘듦이나 화를 표현하기 힘들었을 거에요. 타인의 시선에는 징징대는 것으로 보이거나 제 말이 남을 상처 줄까봐서요.

워크샵을 하고 나서 부턴 덜 힘들어졌어요. 나를 흔드는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기준 그리고 내 감정을 믿게 됐어요. 여전히 화나는 일은 생기지만 그 상처의 화살이 나를 향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게 더 힘이 생기고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서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Prior to the workshop I had changed jobs, which meant a lot of new work and no room to plan anything or be still and think. I wondered if I needed to quit or perhaps needed medication for depression. Attending the workshop felt like too much pressure, and I wanted to tell my leader, who was pushing me to attend, that I didn't want to go. But then I was able to tell [see] that I needed it in my life righ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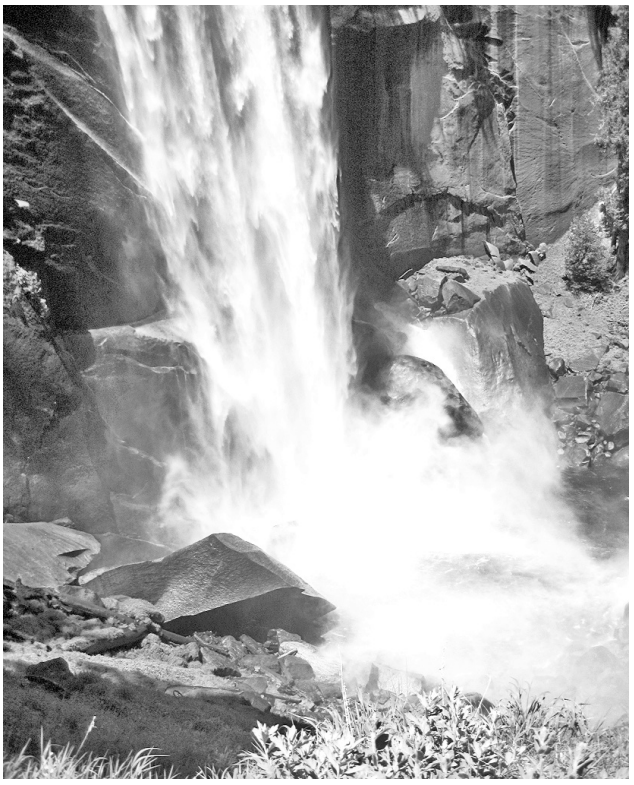
At the workshop, the minute I opened the door I didn't feel like a stranger. I felt welcomed. It made me relax.

It was my first workshop, so I had no idea it was going to be non-stop sessions. In other situations it would have been hard for me to show my struggles or express my anger. I would have been afraid that it would be received as whining or that my words would hurt others.

Things have felt less hard since the workshop. What I reaped from it is to not be shaken by the things that try to sway me but rather to trust my own judgment, my own standard, and my own feelings. Even though things still anger me, I do not allow the arrow of that hurt to be pointed toward me, and that has made me stronger. I have been told that I look like I have more slack now.

Seoyoung Lee
Seoul, South Korea

continued . . ./계속 . . .



YOSEMITE NATIONAL PARK, CALIFORNIA, USA • LANCE CABLK

. . . 계속/. . . continued

재미 교포 2세로서 이 워크샵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모국에 대해 생각을 할 기회가 많았고, 한국인 이라는 사실이 엄청 자랑스러웠고,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느끼는 제도적 인종차별이나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없는 환경에서 내가 더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코카운슬러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 뜻깊고, 편안하고, 감미로웠습니다.

제인 김
미국 일리노이주 글랜뷰시

As a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it was an honor to attend this workshop. It gave me ample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motherland, feel proud of being Korean, and enjoy returning to my homeland. I was able to function more freely and better access my thinking in an environment free from institutional racism and microaggressions. The time I spent with Co-Counselors in Korea was meaningful, comfortable, and sweet.

Jane Kim
Glenview, Illinois, USA

I had the pleasure of helping to organize this event. I am a Korean American of mixed heritage who knows no Hangul [the Korean alphabet] and had never been to Korea before. What could possibly qualify me to be a part of this amazing endeavor? But in preparing for the workshop I learned that because of my access to the discharge process, I can think clearly and am an important member of the Community. My own Korean-ness is just right. I was able to get closer to Koreans, in both RC and the wide world, and to reclaim a little more of my Korean heritage.

Knowing that I had RC support, I brought my Korean mother on the trip. It was her first real visit to her homeland since e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after the Korean War. Highlights of the trip included reuniting her with her sister after sixty years apart, visiting their birthplace, and honoring my grandparents at our family gravesite. We also visited Odusan Reunification Tower, in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the yearning of the Korean people to be reunited was palpable. Now I am *Nuna* ("older sister") to folks previously unknown to me. Now I get to have my entire family forever.

Nahmi Jones
Lake Balboa, California, USA

제가 이 행사 준비일에 참여할 수 있어 아주 기뻤다. 저는 한국말 못하고 한국에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한인 혼합 (한미혼혈) 미국인이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위대한 노력에 참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제가 디스차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또렷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한인 독자성은 완벽합니다. 제가 RC 하는 한국인들과 다른 한국인들도 더 가까워 질 수 있고 제 한인 뿌리도 더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C 지원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 한인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6.25 전쟁 후 미국으로 이민간 후 첫 방문이었습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60년 동안 헤어졌던 어머니와 어머니의 여동생과의 재회와 출생지 방문과 조부모님의 산소에서 기린 차례였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이 크게 느껴졌던 비무장지대에 있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도 방문하였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전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누나입니다. 이제 온 가족을 영원히 갖게 되었습니다.

나미 존스
미국 칼리포니아주 레이크발보아시

I was on the interpreting team, and it was a big stretch for me. I had to discharge a lot and ask for a lot of help. I really, really love the Korean language, and doing this work helped me to have it in my mind even more.

I was also one of the allies at the playday. It was a big contradiction [to distress] for me to see Korean parents try so hard to follow the lead of their children. I loved that I could support them to do that.

I could see that our presence as experienced Co-Counselors made a big difference— that we added a lot of attention and helped the newer people understand the discharge process and understand more about the RC Community.

To see Korean people in Korea use RC was a big blow to my early discouragement that I can keep using in my sessions.

JeeYeun Lee
Chicago, Illinois, USA

저에게 좀 힘들긴 했지만 통역팀에 속했습니다. 디스차지를 많이 해야했고 도움을 많이 청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국말을 더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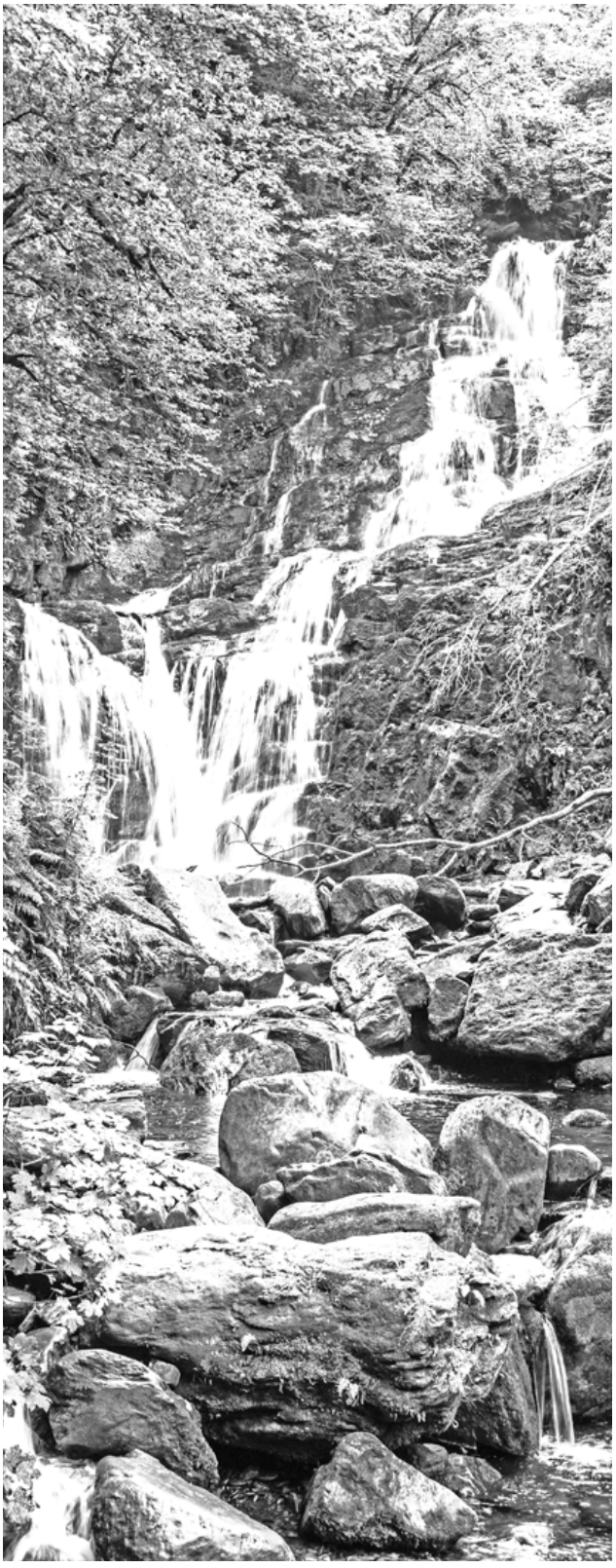
전 "플레이데이"때 어른 동지들 중 한명 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의 지도를 따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디스트레스에 큰 상반된 모습 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경력이 있는 우리 코카운슬러들로 인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졌던 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추가됐고 신입 코카운슬러들에게 디스차지 과정과 RC 커뮤니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RC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제 실망의 덩어리들을 조금씩 깨뜨릴수 있었으므로, 저는 계속 이것을 세션에서 사용 할것입니다.

이지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계속 . . ./*continued* . . .



IRELAND • © STAN EICHNER

. . . 계속/. . . *continued*

새로운 직장을 찾는 중에 워크샵에 참석하게 되었어서 워크샵가면 직장과 관련된 것만 세션을 해야지라고 결심했었습니다. 워크샵 첫날엔 그런 세션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나의 어릴때 깊은 디스트레스에 대해 세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뭐가 중요한가를 놓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써야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린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외부로 부터 가해진거란 것과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션중에 내가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디스차지를 깊이 하고 난 뒤 갑갑함과 심장의 불안정함이 나에게서 사라져 있는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되었다는게 정말 신기 했습니다. RC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리이멀전스에 대한 호기심과 소망도 갖게 되었구요. 워크샵이 지난 지금 저는 상우샘이 진행하는 수업을 매주 참석하고 있답니다.

문정임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At the time of the workshop I was looking for a new job and thought that I should only have sessions on my job search. On the first day I did have that kind of session. But as time went on, I began discharging early distress and started thinking that maybe I had been missing what was most important. I had been ruled by the thought that one must quickly earn money to be able to spend it. As I did more sessions, it occurred to me that this thought had come from outside of me and was making things hard for me. In the middle of one session I realized that I had a deep distrust of the world and people. After I discharged deeply, the suffocation and anxiety disappeared and I started feeling safe. I came to think that RC is a good tool that I can love and resolved to steadily do it going forward. I have curiosity about and hope for re-emergence. Since the workshop, every week I attend the RC class taught by Sangwoo.

Moon Jeong Im
Uiwang,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STEVE BANBURY

워크샵에서 계속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손이나 발이라도 옆사람과 대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고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혼자 있는 게 의젓하다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고 느껴지고 스킨쉽이 불편하게 느껴지죠. 다시 평상시에도 주변사람과 스킨십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워크샵이 저의 본래의 모습을 알려준 것 같아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을 맞대고 있고 싶어하는 걸요.

김현주
대한민국 서울틀별시

At the workshop I always had physical contact. Whether it was a hand or a foot, I was always touching the person next to me. It made me feel like I wasn't alone.

Because of the environment I was in when I was young, I've thought that it was good and mature to be alone. I've felt more comfortable being alone and uncomfortable having physical contact. I would like to feel again that it's natural and comfortable to have physical contact with the people around me. This workshop revealed our original nature, that we want to be with others and have skin-to-skin contact.

Hyunju Kim
Seoul, South Korea

テレサの柔軟で愛に満ちたリーダーシップから多くを学びました。
コミュニティビルディングは、人と人がまずはRCを使って近づきあい、知りあうことからだと言うこと。

テレサは、常にどんな状況においても知性的でした。
何より、遊びの天才だと思いました。
立派な大人であること、真面目で勤勉なアジア人であることに対してのコントラディクションは遊ぶこと、歌うこと、身体に触れ合うこと。
テレサの周りには常に笑いがありました。

コミュニティをつくることは、その国や地域の文化や歴史、言葉を知らないと難しいのでは??と思っていた私は大間違いでした。RCと言う道具を使って、私たちは繋がれるからです。

わこが私のアライとして一緒に参加し通訳に徹してくれたこと。
皆がそのために「在日」について調べて準備してくれたこと。
日本と韓国のRCコミュニティの架け橋になりたい夢がふくらみました。

ふあん きょんじゃ
日本、北海道

Teresa's leadership was flexible and full of love. I learned so much from her, especially about building a Community. I learned that it starts with individuals getting closer, getting to know each other, using RC.

Teresa was so intelligent in many different situations. She also was excellent at playing. The contradiction she offered to us serious and hard-working Asians who were raised to become respectable adults was to play, sing, and touch. There was always laughter around Teresa.

I was wrong to assume it would be hard for us to build community without really knowing each other's culture, history, or language. We were able to connect with each other, using the tool of RC.

Wako Ono devoted herself to interpreting between Japanese and English for me. And before the workshop others learned about Japanese Koreans, so they could think about me. All of this made me want to be the bridge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Korean RC Communities.

Kyongja Hwang
Hokkaido, Japan

테레사의 리더십은 유연하고 사랑이 가득찼다. 그녀 에게서 많은것을 배웠다, 특히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대해. RC를 사용해 개개인이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게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란 것을 배웠다.

테레사는 많은 상황에서 아주 똑똑했다. 그리고 그녀는 노는데에 아주 뛰어났다. 존경스러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심각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배운 우리 아시안들에게 그녀가 준 반박은 놀이, 노래, 그리고 스킨십이었다. 테레사 주변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나는 서로의 문화, 역사, 그리고 언어를 모른 채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허나 RC도구를 이용해 우리는 서로와 통할 수 있었다.

와코 오노는 나를 위해 일본어와 영어를 통역하는데 충실했다. 그리고 워크샵 전에 다른 사람들도 일본계 한국인들에 대해 배웠다, 나를 위하여. 이 모든것이 나를 일본과 한인 RC커뮤니티들 사이에 대교가 되고 싶게 만들었다.

황경자
일본 홋카이도

계속 . . ./*continued . . .*

PARTICIPANTS IN THE KOREAN WORKSHOP • HYUNJU KIM

. . . continued/. . .계속

Our North American group has had three debriefing calls since ou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first call we looked at what was in our way of writing an article about the workshop for *Present Time*, as many of us were struggling with it. In my session I talked about all the things we had accomplished and said, "It went so well that most people wouldn't believe it, and I don't want to tell anyone anything about it." It sounded like a distress recording, and I realized it had come from how colonized Koreans had been trea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subsequent war.

My parents wanted to instill in me every behavior that could possibly help me survive what they had survived. For colonized people, a vital skill is to know when to keep their mouth shut. If they have done something positive, they don't want to jeopardize it by telling anyone about it. If the colonizers find out, they will take it away, ruin it, or punish or even kill them for it. Discharging about this led to a number of re-evaluations.

I am grateful for having Teresa as our ally, for getting to attend the workshop in Seoul, for being a part of this Community, and for having access to discharge.

Cornelia Cho
Atlanta, Georgia, USA

미국에 돌아온 후 북미에서 간 그룹은 보고를 위해 전화 회담을 세 번 했다.

첫번째 전화 회담에 우리 그룹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이라는 RC 잡지에 게재될 워크숍에 대한 글 쓰기가 힘들어서 그것에 대해 디스차지 했다. 나의 세션에 우리가 이루어낸 많은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워크숍이 잘 됐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해 주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디스트레스 녹음과 같이 비슷했다. 식민지 시대와 이후의 6.25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 받았는지 따라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라고 깨달았다.

우리 부모님은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했던 모든 행동을 나의 생존을 위해 주입시키고 싶어 하셨다. 식민지 당한 주민중에 언제 입 다물어야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다. 식민지를 당한 그룹이 어떤 긍정적인 일을 이뤘을때 그것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 말하지 않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빼앗거나 망치거나 처벌하거나 누구나 죽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디스차지 하는 것은 많은 재평가를 불러 일으켰다.

테레사가 우리 동지인 것에, 내가 서울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고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던 점과 디스차지를 할 수 있는 것에 다 감사한다.

코넬리아 조
미국 죠지아주 마리에따시

AR

If you move . . .

and don't tell us in advance of your address change, it causes a surprising waste of resources. The post office does not forward bulk mail; instead it destroys the undelivered literature. Then we usually receive a notice from the post office saying that you have moved and we are charged postage due for the notice. This need not happen if you will kindly let us know of your address change with as much advance notice as possible. You can e-mail address changes to <litsales@rc.org>.

Thank you!
Rational Island Publishers

MARION OUPHOUET